

질문 9 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일본에 올 경우 올해부터 시작한 도일지원(渡日支援)사업의 대상이 됩니까?

도일지원(渡日支援)사업은 도일(渡日)치료 및 수첩 교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일본에 오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10 이후 다시 새롭게 수당 지급 신청을 한 사람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의 경우와 같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람이 사망한 달까지의 수당을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인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사망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한 사람과 상속인과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 11 과거에 일본에 와서 수첩을 취득했지만 수당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당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금 인정을 안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수급권(受給權)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거슬러 올라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후 일본에 와서 새롭게 수당 지급 신청을 해 수당 지급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12 과거 일본에 와서 취득한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첩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합니까? 이전 수첩의 갱신 제도가 있었던 때 취득한 수첩에는 갱신기한이 기재되어 있는데 갱신기한을 경과한 수첩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수첩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수첩은 유효합니다. 여러번 수첩 교부를 받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교부를 받은 수첩이 유효합니다.

수첩 갱신은 1999년도에 폐지 되었으므로 현시점에서 갱신기한을 경과한 수첩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령 갱신기한을 경과한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지급 수당이 있을 경우(예를 들면 1997년 10월에 일본에 와서 수첩을 취득해 수당 지급인정을 받은 사람이 1998년 1월에 일본을 떠나 그후 일본에 오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일본에 와 새로운 수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후 미지급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갱신 기한을 경과한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에 와서 국내의 거주지(거주지가 없는 경우는 현재 머문다는 곳)변경 신청을 할 때 새로운 수첩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